

# 시니어 창업가의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진수<sup>1</sup>, 최명길<sup>2</sup>, 성창수<sup>3\*</sup>

<sup>1</sup>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sup>2</sup>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sup>3</sup>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 A Study on the Effects of Senior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on the Entrepreneurship

Jin-Soo Kim<sup>1</sup>, Myeong-gil Choi<sup>2</sup> and Chang-Soo Sung<sup>3\*</sup>

<sup>1</sup>Dept of Business and Economic, Chung-Ang University,

<sup>2</sup>Dept of Business and Economic, Chung-Ang University,

<sup>3</sup>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nd Entrepreneurial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요 약 최근 우리사회는 사회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되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는 지난 70~80년대 우리경제발전의 주역으로 퇴직 후 재취업의 현실적 어려움과 미흡한 노후준비 및 이들의 복지와 의료문제 등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년부터 시니어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생산적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시니어창업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니어창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니어의 욕구와 시니어창업의 구체적인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의 구체적인 특성과 창업의도 및 성공창업의 핵심역량인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니어창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Our society socioeconomically has faced the sudden changes. The retirement of the baby-boom generation is expected to become mainstream amid the falling birth rate and the aging society at the fastest rate in the world. As such a baby-boom generation is a core pillar of ou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70s and 1980s, the rehiring difficulties after retirement, the insignificant old age preparation and their welfare and medical problem has become national issue.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policy for promoting the senior entrepreneur to participate productive economic activity by actively utilizing the senior's strength from this year. However,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such a senior entrepreneur, the research to study the senior's desire and the concrete characteristics of the senior entrepreneur is nonexistence. Therefore, this paper empirically analysed the senior's concrete nature,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he impact on the senior entrepreneurship, which is the core of the success entrepreneur and provided stimulating measure.

**Key Words** : Senior entrepreneur, Senior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

### 1. 서론

최근 창업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연구에서 50세 이상의 시니어 창업가(senior entrepreneur)의 역할과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29].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조기퇴직의 사회현상은 청년실업과 더불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4]. 특히, 우리사회의 주축 생산동력인 베이비붐 세대(55~63세)가 주퇴직연령대에 진입하면서 생산인력 부족현상의 초래 및

\*교신저자 : 성창수(redsun44@hanmail.net)

접수일 10년 12월 28일

수정일 (1차 11년 03월 15일, 2차 11년 04월 06일)

계재확정일 11년 04월 07일

경제적 위협에 따라 정년을 맞은 시니어들의 창업에 대한 참여 및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6,7,29].

이에 정부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니어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 및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적극 활용한 창업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3].

그러나 이러한 시니어 창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니어의 욕구와 시니어창업의 구체적인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니어창업자의 실태조사와 시니어의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시니어창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시니어 창업

국내 고령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 7.2%, 2010년 11%, 2020년 15.6%,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8.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출산율은 2008년 1.19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6].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변화는 소비와 생산 측면으로 나뉘어 소비패턴의 변화가 산업구조 변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산업생산량, 투입량, 일자리창출, 소비패턴 변화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5]. 이와 같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경제환경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추진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1].

이러한 변화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시니어창업 즉, 50대 이상 시니어의 특성(경험과 전문성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시장 실패를 줄이고 다양한 창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제기되고 있다[3].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시니어 창업의 역할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창업과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다. 최근 들어 선진국(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니어창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연구자마다 다양한 용어로 시니어 창업(grey entrepreneur; senior entrepreneur; elder entrepreneur; senior-preneur)을 설명하고 있다[12,13,28].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시니어 창업의 범위와 수준 및 정의에 대한 일치된 합의는 없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시니어 창업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시니어의 경험, 네트워크, 재무적 자원이 제시되고 있다[29].

[표 1] 시니어 창업의 개념정의[2]

연구자	개념 정의
Baucus & Human (1994)	'제2의 경력 창업가(second career entrepreneur)'로 용어를 정의하고 기존에 창업해서 현재 50세 이상의 창업가가 아닌 시니어에 의해 새롭게 창업하는 것
Arkebauer (1995)	기업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업을 경영하는 50세 이상의 창업가(seniorpreneur)의 창업을 의미함
Blackburn et al.(1998)	'제3세대 창업가(the third age entrepreneur)'로 용어를 정의하고 단순 노인이 아닌 50세에서 75세 사이 연령대의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는 개인의 창업을 의미함
Barclays Economic Reports (2001)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의 개인이 새로운 창업을 하는 것
김진수 (2010)	청·장년기에 취업활동을 하다가 퇴직한 50대 전후의 사람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개인이 창업을 하는 것
중소기업청 (미국)	50세 이상의 개인이 소규모 기업과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운영 하는 것
통계국 (호주)	50세 이상을 출발점으로 기존 직장에서 퇴직한 개인이 창업을 하는 것
중소기업청 (한국)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로서 기업에서 퇴직을 한 개인이 창업을 하는 것

구체적으로 시니어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연령과 사회문화정책적 요인과 관련성이 높다. Blanchflower et al.(2001)의 연구에서 자영업의 종사 비중은 젊은 세대보다 시니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유는 젊은 세대보다 시니어의 은퇴 후 정신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14]. 시니어 세대는 오랜 직장경험을 통한 인적자본의 형성 및 업무에 대한 경험, 정보, 숙련된 기술 및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특히,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여 지식기반 사업영역에서 시니어들의 창업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31].

이와 더불어, 은퇴시기의 연령에 있는 시니어들은 여전히 활동적이며, 일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특성요인인 사회의 문화적 개방성과 다양성은 시니어들의 창업에 대한 동기와 관심을 증대시키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인한 세금혜택과 투자환경조성

은 시니어들의 창업동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7,31]. 이외에도 시니어들의 창업결정요인으로 사회적 요인, 인적자본과 재산, 개인능력, 교육수준 등을 들 수 있다[32]. 구체적으로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적 허용지수, R&D 환경, 기업의 세제율, 개인적 수입과 인적자본으로 개인능력과 교육수준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가계소득과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및 자녀에 대한 책임 등이 시니어창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의 일반현황, 전직현황, 창업관련사항 및 정부지원정책을 조사하였다.

### 2.2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은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 및 국가경제성장과 경쟁력강화의 원동력으로 설명되고 있다[19,30]. 또한, 관리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해 이를 탐색하는 행동으로 정의되고 있다[9].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초기 ‘어떠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시장진입문제(Miles and Snow, 1978)에서 최근에는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라는 기업가적 실행방식과 의사결정형태(Lumpkin and Dess, 1996) 즉, 기업가적 관리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왔다[8,21,22].

또한,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는 Miller(1983)의 연구를 토대로 Covin and Slevin(1988)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최고경영진의 사업관련 위험의 감수와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과 변화를 선호하며 다른 기업과 적극적으로 경쟁하는 성향을 가진 정도로 정의하고 혁신성(innovativeness), 위험감수성(risk taking), 진취성(proactiveness)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다[15, 18, 22, 23]. 이후, Lumpkin and Dess(1996)는 관리적 관점에서 Morris and Paul(1987)의 정의에서 자율성(autonomy)과 경쟁적 공격성(competitive aggressiveness)을 더한 다섯 가지 차원으로 기업가정신을 설명하였다 [16,20,25].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혁신성과 위험감수성 그리고 진취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기업가정신을 설명하고 있다[17,24].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표 2에서 기업가정신의 주요 구성요소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표 2]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차 원	개념 정의
혁신성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프로세스 개발을 목표로 한 실험과 창조적 프로세스를 통한 새로운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성향
위험 감수성	급변하는 환경에서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행하는 개인의 성향
진취성	미래 수요의 예측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통찰력을 가진 선도자의 진취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혁신을 추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진취적 활동을 통해 지속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개인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구성개념으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으로 설명하였다.

## 3. 조사설계

### 3.1 연구방법 및 조사설계

본 연구는 시니어 집단의 창업지원 육성 방안을 위한 정책마련의 일환으로 시니어 세대의 창업 지원의 필요성과 수요 그리고 지원방향을 분석함으로써 시니어 창업 지원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진행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면접원별 30%에 대해 신뢰도를 검증하는 유선검증을 통한 자료검수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부실 자료에 대한 재확인과 보완을 거친 후 최종 유효자료에 대해 통계처리 하였다.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중 창업의도가 있는 시니어 예비창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조사 후 1차 설문지 검증 과정에서 부적합한 데이터 70개를 제외하였으며, 2차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 문항 logic 에러, 응답오류 등으로 인한 부실 데이터 130개를 추가로 제외하여, 총 800개의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확인과 검증을 거친 자료에 대해 EXCEL 및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 자료는 기술통계분석(빈도분석)을 토대로 추론 통계분석 즉, 세부 집단 간 비교분석을 위해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조사설계

구분	설계 방안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니어 집단의 예비창업자</li> <li>① 50+세대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 중 창업할 의사가 명확한 자</li> <li>② 50+세대 중 창업할 의사가 명확한 자</li> </ul>
표본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창업교육 수료생</li> <li>■ 중소기업청이 보유한 예비창업자</li> </ul>
유효 표본수	■ 1000개중 800개 유효표본
표본추출방법	■ 단순임의추출법(Simple Random Sampling)
조사 지역	■ 전국
조사 방법	■ 방문 면접조사
조사 기간	■ 2009년 12월 10일-12월 14일

3.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응답자의 일반현황, 기업가정신의 수준, 응답자의 전직현황, 창업관련 및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변수들의 정의 및 측정 방법은 표 4와 같으며, 설문지를 구성하는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에 대한 일반사항 및 인구통계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표 4] 조사내용

구분	주요 조사항목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가계 주 수입원, 학력</li> </ul>
기업가 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성: 제품, 서비스, 기술의 혁신수용</li> <li>● 진취성: 기회를 포착하는 진취적 특성</li> <li>● 위험감수성: 불확실 상황에서의 도전실행</li> </ul>
전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직 직종, 근무년수</li> <li>● 전직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 참여 프로그램 분야, 만족도</li> <li>● 창업지원 프로그램 필요성</li> </ul>
창업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의도, 창업동기, 사업체 형태, 사업장 소유 형태, 사업장 입지유형</li> <li>● 전직관련 여부, 전직이력, 관련분야 경력</li> <li>● 창업희망 업종 및 세부업종</li> <li>● 창업 준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창업 관련 정보획득 경로, 정보만족도</li> <li>● 창업에 필요한 적정 소요자금, 본인 자본비율, 소요자금 조달방법</li> <li>●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li> </ul>
정부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니어 창업지원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분야(자금, 교육, 컨설팅, 인프라구축, 정보제공 등)</li> </ul>

4. 실증분석

4.1 표본의 특성

4.1.1 응답자 개인 특성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50세 이상 창업관련 교육 수료생 및 중소기업청이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임의추출을 통해 조사되었으며, 조사된 응답자별 개인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572명(71.5%), ‘여성’ 228명(28.5%)으로 남성이 2/3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 734명(91.7%), ‘60대 이상’ 66명(8.3%)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62명(7.8%), ‘고졸’ 245명(30.6%), ‘전문대졸’ 74명(9.3%), ‘대졸’ 283명(35.4%), ‘대학원 이상’ 132명(16.5%) 등으로 나타나, 대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응답자 개인 특성 (단위 : 명, %)

구분		N	%
성별	남	572	71.5
	여	228	28.5
연령	50대	734	91.7
	60대 이상	66	8.3
최종 학력	중졸	62	7.8
	고졸	245	30.6
	전문대졸	74	9.3
	대졸	283	35.4
	대학원 이상	132	16.5
	무응답	4	0.5
전체		800	100.0

4.1.2 응답자 가계 특성

응답자별 가계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원수는 본인포함 ‘1명~2명’이 116명(14.5%), ‘3명~4명’ 552명(69.0%), ‘5명 이상’ 127명(15.9%) 등으로 나타나, 본인과 배우자, 그 외에 자녀 등과 함께 사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원~500만원 미만’이 259명(3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만원~300만원 미만’이 235명(29.4%), ‘500만원 이상’이 211명(26.4%)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평균은 약 379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계 주 수입원은 ‘본인’이 494명(61.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배우자’ 224명(28.0%), ‘자녀’ 35명(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응답자 가계 특성 (단위 : 명, %)

구 분		N	%
가구 원수	1명~2명	116	14.5
	3명~4명	552	69.0
	5명 이상	127	15.9
	무응답	5	0.6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0	2.5
	100만원~300만원 미만	235	29.4
	300만원~500만원 미만	259	32.4
	500만원 이상	211	26.4
	무응답	75	9.4
	평균	379만원	

구 분		N	%
가계 주 수입원	본인	494	61.8
	배우자	224	28.0
	자녀	35	4.4
	연금/퇴직금	19	2.4
	임대료	3	0.4
	저축	22	2.8
	기타	3	0.4
전체	800	100.0	

4.2 기업가정신의 차이에 따른 영향요인 분석

4.2.1 전직현황과 기업가정신

4.2.1.1 퇴직 전 근무분야와 기업가정신

퇴직 전 근무분야에 따른 기업가정신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근무분야에 속하는 표본크기의 차이로 인하여 표본크기가 10% 이상을 차지하는 5개 집단(기획관리/영업 및 판매/생산 및 관리/연구기술개발/자영업)을 선정하여 5개 집단으로 구분(n=707)하였다.

ANOVA 분석 결과 F-value=3.07, df=4, p-value=0.02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Scheffe 사후분석결과 ‘기획 관리’와 ‘자영업’ 집단 간 기업가정신 수준 차이가 유의수준 5%수준에서 0.18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퇴직 전 근무분야 5개 집단별 기업가정신 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기획관리’ 집단과 ‘자영업’ 집단의 기업가정신 수준 비교에서 기획관리(4.63) > 자영업(4.4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퇴직 전 주요 근무분야

구분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기획관리	99	4.626	0.392	0.039
영업 및 판매(마케팅)	256	4.557	0.388	0.024
생산 및 관리	99	4.476	0.406	0.040
연구·기술개발	149	4.540	0.400	0.032
자영업	104	4.447	0.507	0.049
계	707	4.536	0.415	0.015

소속기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즉, 자영업을 제외한 기획관리/영업 및 판매/생산 및 관리/연구·기술개발의 4개 집단에 대한 ANOVA 분석결과 F=2.42, df=3, p-value=0.07로 4개 집단별 기업가정신 수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cheffe 사후분석 결과에서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요약하면, 기업가정신의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기획관리)과 가장 낮은 집단(자영업)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기업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4개 집단(기획관리/영업 및 판매/생산 및 관리/연구·기술개발) 간 기업가정신 수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2.1.2 퇴직 전 주요 출신이력과 기업가정신

퇴직 전 주요 출신이력에 따른 기업가 정신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중소서비스업/대기업/자영업 근무까지의 4개 집단이 유효표본의 72.8%를 차지함에 따라 이러한 4개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ANOVA 분석 결과 F=1.33, df=3, p=0.27로 4개 집단 간 기업가정신의 정도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퇴직 전 주요 출신이력과 기업가정신

구분	N	Mean	Std. Deviation
중소제조업	118	4.575	0.383
중소서비스업	116	4.575	0.371
대기업	93	4.597	0.350
자영업	58	4.472	0.517
계	385	4.565	0.396

4.2.1.3 근무년수와 기업가정신

근무년수에 따른 기업가 정신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무년수(개월)와 기업가정신 수준 간 상관분석

결과 Pearson correlation=0.25, p-value=0.000으로 근무년수와 기업가정신의 정도는 양(+)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년수를 4개 집단(10년미만/10-20년/20-30년/30-40년)으로 구분하여 ANOVA 분석결과 F-value=19.14, df=3, p-value=0.00으로 4개 집단 간 기업가정신의 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분석결과 20-30년, 30-40년의 두 집단(p-value=0.69) 이외의 모든 쌍의 집단들은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value <=0.03). 요약하면, 근무년수가 길수록 기업가정신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근무년수와 기업가정신

구분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10년미만	70	4.214	0.527	0.063
10년이상-20년미만	202	4.462	0.429	0.030
20년이상-30년미만	352	4.571	0.398	0.021
30년이상-40년미만	176	4.618	0.373	0.028
계	800	4.523	0.427	0.015

4.2.2 창업프로그램 만족도와 기업가정신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았던 표본(n=114)을 토대로 창업프로그램 만족도와 기업가정신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창업프로그램 만족도와 기업가정신의 상관관계분석결과 Pearson correlation=.27, p-value=0.003. 즉, 창업프로그램의 만족도와 기업가정신의 정도 사이에는 27%의 상관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정도는 표 10과 같이 창업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기업가정신 수준의 크기가 커짐을 알 수 있다.

[표 10] 창업프로그램 만족도와 기업가정신

구분	N	Mean	Std. Deviation
약간불만족	5	4.140	0.492
보통	25	4.520	0.454
약간만족	55	4.549	0.331
매우만족	29	4.706	0.316
계	114	4.564	0.378

4.2.3 창업에 대한 인식과 기업가정신

4.2.3.1 창업의도(추진여부)과 기업가정신

창업추진여부는 2개 집단인 “현재 창업을 추진 중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구체적 계획은 현재 없으나 향후 창업 필요성 느낌)”으로 구분하여 기업가정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t-test 결과 t=5.02, df=272.83, p=0.00으로 현재 창업 추진 중인 집단의 기업가정신 정도가 창업 추진 계획이 없는 집단의 기업가정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창업의도(추진여부)와 기업가정신

구분	N	Mean	Std. Deviation
현재 창업을 추진중	614	4.567	0.404
현재 구체적 계획 없음	186	4.376	0.470

4.2.3.2 창업동기와 기업가정신

창업을 하려는 동기와 기업가정신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OVA 분석결과 F=18.23, df=2, p=0.00으로 “창업을 하려는 동기”의 3개 집단 간 기업가정신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공가능성에 따른 창업을 하려는 동기의 경우 기업가정신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창업동기와 기업가정신

구분	N	Mean	Std. Deviation
창업을 통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서	323	4.626	0.348
생계유지를 위해서 (다른 대안이 없어서)	244	4.416	0.457
창업을 통해 자아실현	233	4.492	0.463
계	800	4.523	0.427

4.2.4 창업 희망업종과 기업가정신

창업 희망업종에 따른 기업가정신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OVA 분석결과 F=6.12, df=3, p=0.00으로 창업선호업종 4개 집단 간의 기업가정신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화 및 IT업종’과 ‘기타’의 2개 집단은 표본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Scheffe 사후분석결과 창업희망업종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기업가정신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즉, ‘제조업 창업희망’집단의 기업가정신 수준이 ‘서비스업 창업희망’집단의 기업가정신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창업 희망업종과 기업가정신

구분	N	Mean	Std. Deviation
제조업	325	4.601	0.374
정보화 및 IT업종	36	4.419	0.405
서비스화 업종	420	4.471	0.461
기타	19	4.510	0.355
계	800	4.523	0.427

4.2.4.1 제조업 창업희망집단

제조업 창업희망집단의 세부업종 분류에 따른 기업가정신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본크기로 인하여 전기전자제조/기계금속제조/화학섬유제조/바이오(건강)식품 제조업의 4개 집단(전체의 79.1% 비중)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ANOVA 분석결과, F=0.86, df=3, p=0.46으로 4개 집단 간 기업가정신 수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2.4.2 서비스업 창업희망집단

서비스업 창업희망집단의 세부업종 분류에 따른 기업가정신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통 및 물류산업’과 ‘식당 및 요식업’을 선호하는 표본이 전체의 71.7%로 이러한 2개 집단의 기업가정신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t-test 분석결과 t=-1.66, df=299, p=.10으로 2개 집단의 기업가정신 수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집단과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창업희망업종은 기업가정신 수준의 높고 낮음과는 무관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시 말해, 기업가정신 수준의 정도는 특정 업종의 창업 선호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창업희망 업종 분류 (단위 : 명, %)

구분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제조업	전기·전자제조업	102	31.4	31.4
	기계·금속제조업	84	25.8	57.2
	화학·섬유제조업	41	12.6	69.8
	바이오(건강)식품제조업	30	9.2	79.1
	대체에너지개발업	12	3.7	82.8
	공해방지장치산업	10	3.1	85.8
	지역특산물제조업	11	3.4	89.2
	전통주제조	2	0.3	89.8
	가구제조	5	1.5	91.4
	생활용품제조	7	2.2	93.5
	비금속광물제조업	2	0.6	94.2
	식품제조	11	3.4	97.5

	기타	7	2.2	99.7
	모름/무응답	1	0.3	100.0
	계	325	100	
서비스업	유통 및 물류산업	157	37.4	37.4
	식당/요식업	144	34.3	71.7
	경영·기술컨설팅/자문업	19	4.5	76.2
	미용 및 보건업	14	3.3	79.5
	문화서비스업	14	3.3	82.9
	기타	11	2.6	85.5
	인터넷쇼핑몰	10	2.4	87.9
	어린이산업	9	2.1	90.0
	오락·미디어업	6	1.4	91.4
	실버·노인산업	5	1.2	92.6
	기업서비스산업	5	1.2	93.8
	교육서비스업	5	1.2	95.0
	가족서비스산업	4	1.0	96.0
	임대업	4	1.0	96.9
	가사대행서비스업	3	0.7	97.6
	금융서비스업	3	0.7	98.3
	사회서비스업	3	0.7	99.0
	레저산업	3	0.7	99.8
여행 및 관광업	1	0.2	100.0	
	계	420	100	

4.2.5 기업가정신에 따른 세부집단의 차이 비교분석

설문 응답 집단을 3개 집단(제조업 희망 및 창업추진 중/서비스업 희망 및 창업추진 중/ 창업추진 아님)으로 세분화하여 기업가정신에 대한 차이 비교를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ANOVA 분석결과, F=17.940, df=2, p=0.000으로 3개 집단의 기업가정신 평균은 서로 같다고 할 수 없다. 즉, 집단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3개 집단을 2개의 집단별로 t-test를 실시하였다. 집단 1과 2의 t-test에서 t=2.186, df=563.56, p=.03으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집단 2와 3의 t-test에서 t=3.831, df=526, p=.00으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3개 집단 간 기업가정신의 평균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제조업 희망 및 창업추진 중” 집단 > “서비스업 선호 및 창업추진 중” 집단 > “창업추진 중이 아님” 집단 순으로 기업가정신의 수준이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창업추진 중”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기업가정신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창업추진 중에 있으며 제조업 희망 집단”이 “창업추진 중의 서비스업 희망하는 집단” 보다 기업가정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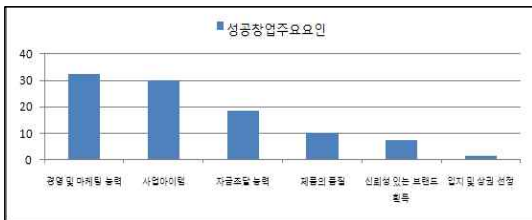
[표 15] 기업가정신과 세부집단의 차이 비교

구분	N	Mean	Std. Deviation
제조업 희망 및 창업추진 중	272	4.6147	.37031
서비스업 희망 및 창업추진 중	296	4.5412	.43060
창업추진 중이 아님	232	4.3931	.45626
계	800	4.5232	.42783

4.2.6 창업 성공요인

4.2.6.1 제조업 창업희망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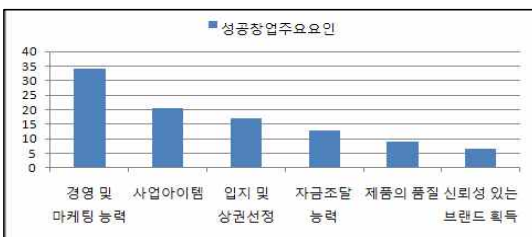
업종별로 창업에 필요한 성공요인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조업 창업 희망집단은 현재 창업추진 중인 집단으로서 제조업에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영 및 마케팅 능력(32.4%) > 사업아이템(30.1%) > 자금조달 능력(18.4%) > 제품의 품질(10.3%) > 신뢰성 있는 브랜드 획득(7.4%) > 입지 및 상권 선정(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제조업 성공창업 주요요인

4.2.6.2 서비스업 창업희망집단

서비스업 창업희망집단은 현재 창업추진 중인 집단으로서 서비스업종에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영 및 마케팅 능력(34.1%) > 사업아이템(20.6%) > 입지 및 상권선정(16.9%) > 자금조달 능력(12.8%) > 제품의 품질(9.1%) > 신뢰성 있는 브랜드 획득(6.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서비스업 성공창업 주요요인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50+세대인 시니어 세대의 창업에 대한 인식수준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추론통계분석(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 집단을 세분화한 집단 간 비교분석을 통해 시니어창업 지원정책의 기초 자료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의 핵심주체인 기업가정신의 수준은 예비 퇴직자 및 시니어 세대의 창업의도(창업추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및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교육훈련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여 시장실패를 줄이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일괄적인 선순환 프로세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에 적합한 시니어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창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자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직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창업자 집단에서도 창업교육에 대한 수요는 96.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교육 수요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시니어에 특화된 창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욱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창업프로그램 참여와 이수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서비스 창업을 희망”하면서 “창업지원프로그램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은 프로그램 참여/이수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지원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퇴직 전 근무지에서 창업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공 창업을 위한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조업종의 경우 경영 및 마케팅 능력 > 사업아이템 > 자금조달 능력 > 제품의 품질 > 신뢰성 있는 브랜드 획득 > 입지 및 상권 선정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비스업종의 경우 경영 및 마케팅 능력 > 사업아이템 > 입지 및 상권선정 > 자금조달 능력 > 제품의 품질 > 신뢰성 있는 브랜드 획득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종의 경우에는 자금조달 능력, 품질관리 분야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서비스업종의 경우에는 입지 및 상권선정 방법에 대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 즉, 시니어 창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에서 교육대상의 수요와 욕구에 맞추어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업종으로 ‘서비스화 업종’



이 5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제조업' 40.6%, '정보화 및 IT' 업종 (4.5%)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제조업'이 47.7%, 여성은 '서비스화 업종'이 68.9%로 조사되어 남성은 '제조업'을 여성은 '서비스화 업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화 업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통 및 물류산업' (37.4%), '식당/요식업' (34.3%)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부가가치가 높은 '컨설팅', '인터넷 쇼핑물', '문화서비스', '금융서비스업' 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자본력과 기술이 있는 시니어들은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제조업'을 선호하고, 전문성과 자본력이 부족한 시니어와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비교적 소자본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식당/요식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식당 및 요식업'의 종사자가 OECD 국가 평균으로 미국보다 약 네 배에 이를 만큼 포화상태임을 감안할 때, 시니어에 적합한 유망 업종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업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정보화 및 IT 업종에서는 '시스템 통합'(50.0%), '멀티미디어'(25.0%) 업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스템 통합' 업종의 특성은 IT 전문성을 보유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는 측면이 강함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 또한 시니어에 적합한 다양한 업종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시니어창업 지원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분야에서도 '창업 유망업종 발굴 및 신사업아이템 정보제공'에 대한 수요가 35.0%로 '자금 지원'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시니어창업에 적합한 유망업종개발과 관련정보의 통합적 제공방안이 시급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프랜차이즈 등 안정적인 업체 형태 개발이 필요하다. 창업 시 희망하는 사업체 형태는 독립점이 8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다수 시니어가 독립점으로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직영점으로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수요는 각각 6.3%와 2.8%에 그치고 있다. 전명진과 김진수 (2008)의 연구에 의하면, 2006년 기준 창업 5년 차인 '5인 미만 기업'의 생존율은 35%이며 실패율은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을 감안할 때, 검증된 비즈니스모델을 바탕으로 생존율이 우수한 업종개발이 필요하다. 선진 외국의 경우, 시니어의 특성상 안정적인 사업체 형태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프랜차이즈 사업과 같은 상대적으로 검증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국내에서는 독립점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시니어창업에 적합한 사업모델의 개발과 보급이 부

족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검증되고 사업성이 우수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금이 요구되는 반면 소자본의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신뢰성과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가맹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대다수의 시니어들이 사업자금과 전문성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시니어에 적합한 유망 업종과 다양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창업을 위한 효과적인 자금지원 방안 개발이 필요하다. 창업추진 중 애로사항으로 모든 집단에서 '자금조달'이 최우선 순위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창업을 희망하고 현재 창업추진 중"인 집단에서는 자금조달 > 판로확보 > 광고홍보부족 > 입지선정 순으로, "서비스업 창업을 희망하고 현재 창업추진 중"인 집단에서는 자금조달 > 입지선정 > 판로확보 > 광고홍보부족 순으로 나타나, 창업자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 지원분야의 수요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시니어창업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지원해야 할 분야로 '창업 및 신용보증 등 자금지원'이 7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창업 희망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정보화 및 IT 업종'은 '1억원~2억원 미만'으로 소요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화 업종'은 '5천만원~1억원 미만' 소요가 3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정책자금'이 6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퇴직금 등 보유자산'(22.6%), '은행대출'(21.0%), '친인척/친구'(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창업 희망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보다 희망업종별로 필요한 지원규모를 적절히 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금지원방안과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자금지원 선정 시, 창업적성검사 및 기업가정신 역량평가 등을 통해 창업에 대한 적성과 성공률을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효율적인 자금지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평가 및 지원시스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시니어 세대의 속성 즉,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중심축임을 재인식하고 시니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이들의 경력과 전문성 및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활용하는 시니어창업 활성화 방안의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시니어창업의 속성상 일정기간 후 '제2의 창업'인 성공적인 가업승계로 유도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방안의 정책적 대안으로 시니어창업을 청년창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즉, 창업을 통한 국

가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재인식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종단적 연구가 아닌 횡단적 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따라 연구결과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둘째, 시간과 자원의 한계로 '50+세대인 시니어 세대'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인 시니어 창업에 대한 인식수준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구 통계적 특성요인에 따라 층화 분류되어야 하나 면접조사의 어려움 상 세밀하게 분류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니어창업과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창업과의 차이점(조직성과와 활동 및 영향요인 등)을 규명하는 다양한 연구주제와 분석기법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참고문헌

- [1] 방하남·신동균·김동현·신현구,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및 노동정책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5.
- [2] 성장수, “시니어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창업학 박사학위논문, 2011.
- [3] 시니어창업넷, [http://www.seniorok.kr], 소상공인진흥원.
- [4] 심재후·최명길, “1인 창조기업의 창업동기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1호, pp. 3363-3372, 2009.
- [5] 이철희, “인구고령화 및 고령남성 경제 활동 참가의 변화가 노동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 제25권, 제6호, pp. 5-44, 2009.
- [6] 전명진·김진수, “창업이 국가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중소기업청, 2008.
- [7] 정경배, “고령자 창업 지원에 대한 정책방향”, 노인복지연구, 제3호, pp. 9-29, 1999.
- [8] 최명길·목영두·심재후, “창업지원 정책의 해외사례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지, 제1권 제1호, pp. 26-30, 2009.
- [9] 최종열·정혜주, “경영학교육이 기업가정신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5권, 제3호, pp. 213-230, 2008.
- [10] Acs, Z. and D. B. Audretsch, “Innovation and Small Firms. Cambridge”, MA: MIT Press, 1990.
- [11] Becker, J. and C. Homburg, "Market-Oriented Management: A Systems-Based Perspective", Journal of Market-Focused Management, Vol. 4, No. 1, pp. 17-41, 1999.
- [12] Blackburn, R., Hart, M. and M. O'Reilly, “Entrepreneurship in the Third Age: New Dawn or Misplaced Expectations?”, in 23rd ISBA National Small Firms Policy and Research Conference, Aberdeen University, pp.1-17, 2000.
- [13] Blackburn, R., Mackintosh, L. and J. North, "Entrepreneurship in the Third Age", Kingston University Small Business Research Centre, Surrey, 1998.
- [14] Blanchflower, D. G., Oswald, A. J. and Stutzer, A., "Latent Entrepreneurship across Nation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5, pp. 680-691, 2001.
- [15] Covin, J. G. and D. P. Slevin,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 Structure on the Utility of an Entrepreneurial Top Management Styl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Vol. 25, No. 3, pp. 217-259, 1988.
- [16] Covin, J. G. and M. P. Miles,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the Pursuit of Competitive Advantag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23, No. 3, pp. 47-63, 1999.
- [17] González-Benito, O. and J. González-Benito, "Cultural vs. Operational Market Orientation and Objective vs. Subjective Performance: Perspective of Production and Operations,"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Vol. 34, No. 8, pp. 797-829, 2005.
- [18] Kreiser, P. M., Marino, L. D. and K. M. Weaver, "Assessing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Scale: A Multi-Country Analysi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14, No. 13, pp. 315-344, 2002.
- [19] Leora Klapper, "Entrepreneurship and Firm Formation Across Countri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orld Bank, 2007.
- [20] Lumpkin, G. T. and G. G. Dess,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1, No. 1, pp. 135-172, 1996.
- [21] Matsuno, K., Mentzer, J. T. and A. Ozsomer,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Proclivity and Market Orientation on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Marketing, Vol. 66, No. 7, pp. 18-32, 2002.
- [22] Miles, R. E. and C. C. Snow, "Organizational Strategy", Structure and Process, New York: McGraw-Hill, 1978.
- [23] Miller, D.,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Vol. 29, No. 7, pp. 770-791, 1983.
- [24] Moreno, A. M. and J. C. Casilla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Growth of SMEs: A Casual Model,"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32, No. 3, pp. 507-528, 2008.

[25] Morris, M. H. and G. W. Paul,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Marketing in Established Fir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2, No. 3, pp. 247-259, 1987.

[26]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Paris: OECD, 2004.

[27] Schuetze, H. J., "Taxes, Economic Conditions and Recent Trends in Self-employment: A Canada-U.S. Comparison," Labour Economics, Vol. 7, pp. 507-554, 2000.

[28] Seymour, N., "Starting Up After 50", Available: [http://www.celcee.edu/publications/digest/Dig02-05.html ],(accessed 25, February, 2003), 2002.

[29] Weber, P. and M. Schaper, "Understanding the Grey Entrepreneur", Journal of Enterprising Culture, Vol. 12, No. 2, pp. 147-164, 2004.

[30] Zahra, S. A., "The Changing Rules of Global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Vol. 13, pp. 36-42, 1999.

[31] Zhang, T., "Age and Elderly Entrepreneurship", Working Paper, George Mason University, Fairfax, Virginia, 2007.

[32] Zhang, T., "Elderly Entrepreneurship in an Aging Us Economy It's Never Too Late, Series on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2,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Pte. Ltd, 2008.

최 명 길(Myeong-Gil Choi) [정회원]



- 2004년 9월 :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창업정책, 시니어창업, 기술창업, 1인지식창조기업, 보안성평가, 정보보호정책 및 관리

성 창 수(Chang-Soo Sung) [정회원]



- 2011년 2월 : 중앙대학교 창업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2010년 4월 ~ 현재 : (주)이앤씨 플랜 대표이사

<관심분야>

기업가정신, 시니어창업, 창업마케팅, 창업교육

김 진 수(Jin-Soo Kim) [정회원]



- 1990년 12월 :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경영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청 창업정책 자문위원
- 1995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기업가정신, 창업정책, 시니어창업, 기술창업